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적 기능

노 치 준

(광주대학교)

《요약》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통합의 기능과 변동의 기능으로 나눈 후 그것을 각각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누어 4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개신교회는 기독교가 가진 보편주의적 가치, 전국적인 교회조직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성과 신분에 의한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에는 계층간, 계급간, 직업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종교간 갈등, 개교회주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통합의 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개신교회는 근대화의 통로가 되고,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사회변혁 운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변동의 순기능을 수행하였다. 한국교회가 가진 보수주의와 지나친 반공주의, 정권과의 결탁, 권위주의와 물량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사회변동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한국개신교회의 역사적 흐름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고찰할 때, 사회통합 및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선교 100년 남짓한 세월을 통해서 한국의 중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 중에서 긍정적인 순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사회학이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 종교 자체 속에 사회학적인 관심을 끌만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종교적 행위 자체가 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리하여 인간관계, 행위의 규칙, 권위와 지배, 조직으로서의 속성, 지위와 역할, 조직성원 간의 상호 작용 등이 종교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교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사회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나 혹은 종교 자체의 관점에서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종교는 그 자체의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혹은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이원규 : 17-20쪽). 종교가 사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는 표현은 인과론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좀 더 완화된 방식으로 달리 표현한다면, 종교는 사회 속에 있으면서 일정한 기능을 행한다고 할 수도 있다.

종교의 기능을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종교사회학의 전통에 따라 사회통합의 기능과 사회변동의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노치준, 1987 : 124-129).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그 이론이 가진 정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가지의 개념을 상호 교차시켜 종교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통합의 기능	변동의 기능
순기능	A	B
역기능	C	D

우리는 이 두가지 개념을 종합하여 A를 통합-순기능, B를 변동-순기능, C를 통합-역기능, D를 변동-역기능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4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현재의 시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상태가 되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의 현황과 과거의 역사적 과정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역사적 연속선 상에서 종교의 기능을 검토하여 기능주의적 접근이 자칫

빠지기 쉬운 몰역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종교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이상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여기서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과 역사적 과정만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적 자원을 이용한 당위성의 측면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당위성에 대한 관심은 한국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 결과 기독교 자체의 반성과 새로운 방향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교 가운데 하나인 개신교의 건강성이 회복된다면 그것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개신교회의 통합 - 순기능

보편주의적 가치의 확립 :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인 가치를 더욱 고취하여 한국사회의 통합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즉 기독교 속에 들어있는 이웃사랑, 봉사, 희생, 인간 존중, 공동체적 삶, 인간 평등 등과 같은 보편주의적인 가치를 더욱 널리 확산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차별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는 집단구성원들의 힘의 차이에 의해 차별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영속화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차별적 구조의 영속화는 차별받는 집단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사회통합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차별구조의 타파와 완화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길이 된다.

한국개신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낸 중요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성과 천민의 문제였다. 기독교회는 초창기부터 남녀의 동등권을 주장하였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였다는 가르침에 근거하여 여권의 신장과 여성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독립신문 1898년 1월4일 논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하심이 무론 남녀하고

이목구비와 심(心)의 성정(性情)은 다 한가지며, 만물의 가운데에 제일 총명하고 신령한지라”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개신교는 여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여 여러 지도자를 배출하였다(이만열, 1981: 39-46). 사실 초창기 여성 지도자의 절대 다수는 개신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덕주, 1990) 기독교적 보편주의에 근거하여 남녀평등, 여성교육, 여성지도자 양성 등이 교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사회의 남녀 사이에 분열된 골이 서서히 메꾸어지기 시작하였다. 신분적 분열의 벽을 메꾸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도 기독교회는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초기 개신교의 역사 속에는 교인들이 노비를 풀어주는 일이 적지않게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교회의 박정렬, 황해도 법내감리교회의 이연철 등이 노비를 풀어주면서 ‘나가 자유로 살면서 주를 진실히 믿으라’고 권면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곤당골 장로교회의 무어(S. F. Moore)선교사는 조정의 내부에 진정서를 보내어 백정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평민의 신분을 확보하며 갓을 쓸 수 있도록 소청하면서 백정들의 가련한 상태를 낱낱이 알렸다. 조정의 내부에서는 이 진정서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후 백정들이 교회에 많이 등록하게 되었다(민경배, 1987: 102-104).

우리 사회는 현재에도 계층 및 계급간 갈등, 직업간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IMF체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결과 계층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마르틴과 슈만이 말한바 20 : 80의 사회를 향하고 있다(Martin & Schmann). 경제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성원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하여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예방하고 계층이나 계급간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책무가 요청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 :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설교나 예배와 같은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학의 기본적인 명제이

다. 따라서 기독교적 정신에 근거한 사회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의 분열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개신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은 선교초창기부터 이어져 왔다. 개신교회의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은 근대문명의 도입과 한국민에 대한 보편적 애정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09년 현재 720개의 학교에서 17,656명의 학생들이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체 학생수의 62%에 해당하는 수였다(김양선 : 383). 또한 초창기의 근대식 병원들은 거의 기독교 계통 병원으로 1910년경까지 전국에 30여개의 병원이 세워졌다(민경배, 1987: 95-98). 일제시대에 한국기독교가 행한 중요한 사회봉사사업으로는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 중반까지 많이 이루어졌던 농촌사업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1920년대에 활발하였던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폐창운동 등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외에도 농아학교, 고아원, 양로원, 나병원, 결핵요양원, 아동보건소, 자선남비 등의 사업을 실행하였다(김양선: 154-161), 해방후부터 60년대까지의 외원에 의존한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던 시절 한국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당시 한국에 들어온 외원기관147개 가운데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기관이 73개로 49.7%를 차지하였다(최원규: 95-96). 1957년판 기독교연감에는 543개의 기독교 복지시설의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한국기독교연합회: 234-245) 이것은 한국의 복지시설 가운데 70-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7년 현재에도 전국 166개시설 1,393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63%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280-281). 80년대 이후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별 교회에서의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이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노치준 1999: 53-56).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은 한편으로 한국개신교회의 대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활동이 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가진자의 재화와 서비스가 가지지 못한자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들 사이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개신교회의 전체규모를 볼 때에 사회봉사활동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도, 또한 한국사회의 계층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더욱 더 많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교회조직과 사회통합 : 개신교회의 조직을 통해서도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구조 가운데 하나는 지역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해소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의 경우 확연하게 지역정당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 갈등을 완화하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념적 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종교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개신교의 경우 약200만명의 신도를 각각 보유한 예수교장로회 합동측과 통합측의 교단조직이 있다. 그리고 100만명이 넘는 신도를 가진 감리교와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있고, 50만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몇개의 교단이 있다(한미준: 206). 이러한 교단들은 그 나름의 운영체제와 조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신도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의 뜻을 모으는 총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지역간 차이에 의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교회조직 안에서는 통일된 규칙에 따라 활동하고 같은 교단의 신도라는 동일시의 감정이 나타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독교 교단 조직의 연결망을 매개로 한 지역간의 인적 교류는 지역에 따른 사회적 분열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회의 개별조직도 독특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느 교회나 공동체적인 성격이 나타나지만, 한국의 중요 종교 가운데 일반 신도들의 조직과 참여가 가장 활발한 곳이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다(노치준, 1995: 80-81). 교회공동체 안에 다양한 부류의 신도들이 모여서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교회조직 안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모이고, 부자와 빈자가 교제를 나누며, 교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리를 같이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세대, 직업, 연령, 교육수준 등에 의해 분열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문화적 지향성과 사회통합 : 한국의 개신교회는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한국사

회를 통합할만한 상황에 있지 못하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한국교회의 문화적 지향성은 사회통합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의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개신교회의 문화활동 가운데 한국사회의 통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글운동이다. 언어학의 복잡한 이론을 논의하지 않는다 해도 언어가 사회통합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성경의 발행과 교회 안에서의 한글교육을 통해서 한글이 발전하고 유지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춘원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교회외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매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되어졌다고 하였다(이광수: 18). 특별히 일제하에서 한글이 탄압받던 시절 개신교회를 배경으로 주시경, 장지영, 최현배, 김윤경 등 한글학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또한 수많은 한글성경이 반포되면서 기독교와 함께 한글이 한국인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노치준, 1993: 258-262 ; 이만열, 1987: 한국의 성서번역과 그 반포사업).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는 민족사와 민족 지리 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사회통합의 한 몫을 담당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서 남궁억은 1924년 ‘동사략’, 1929년 ‘조선이야기’를 저술하였으며, 함석헌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썼다(함석헌). 또한 김교신은 일제의 반도결정론을 부인하는 ‘조선지리지서고’를 서술하였다(김교신).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한국적인 교회, 민족교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져 왔다(민경배, 1974). 한국의 개신교회는 100여년전 한국땅에 들어온 외래종교이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의 전통과 충돌하면서 통합의 역기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는 한국의 전통과 기독교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적지 않게 발견되며, 특히 민족적 단결과 결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한글의 발전과 유포에 상당히 기여하여 통합적 순기능을 수행하였다.

III. 한국개신교회의 통합-역기능

종교간 갈등 : 한국개신교회는 한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성은 때때로 타종교에 대한 갈등과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때로 신문에 보도되는 불상훼파 사건, 사찰 방화사건 등은 작게는 개신교인과 불교인의 갈등을 초래하지만 크게 본다면 한국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간 갈등은 다른 사회적 갈등요소들과 중첩될 때 자주 나타난다. 즉 하층민은 A종교를 믿고 중산층 이상은 B종교를 믿는 경우, 백인과 흑인과 같이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인종에 따라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종교와 사회 집단간의 준계급적 결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오경환: 286-291). 계층간 갈등, 인종간 갈등, 지역간 갈등 등과 같은 갈등의 요소들이 종교와 결합되면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는 다른 사회적 갈등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을 선한 세력으로 상대방을 악한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이슬람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전(하지드)의 개념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의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의 분포가 계급이나 계층, 지역 등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종교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회통합이 무너지게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산, 대구, 경상도 지역이 타 지역보다 불교신자가 많은 편이며, 서울 경기 호남 지역이 기독교 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지역과 결합되면서 갈등 구조를 일으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사회 일반의 영역보다는 가족적인 측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내의 종교간 갈등에 가장 많이 개입되는 종교인은 개신교인이었다. 종교적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하여 305사례를 조사한 결과 관계단절 10.5%, 소원한 관계 24.3%, 개종이나 종교의 포기 19.6%, 평화적 공존 29.2%, 불명 0.3%로 나타났다.

다. 관계단절과 소원한 관계가 합해서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종교가 가족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노치준, 1998: 제5장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가족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더욱 확장되어 사회전체의 통합과 관련된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데 개신교인들이 보다 많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개신교의 신앙적 특성과 구조적 조건이 종교간 갈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노치준, 1998: 127-129):

개교회주의 :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한국교회가 가진 전국적인 조직망에 의한 사회통합의 기능을 많이 상쇄한다고 할 수 있다. 개교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작용하는 다종교사회에서 교회가 그 조직체의 유지와 발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교회조직 운영의 원리이다.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종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개교회주의 원리에 의해서 한 교회가 가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교회 자체의 성장이나 유지에 주로 투입되는 현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다(노치준, 1995: 제2장 한국교회운영의 원리 - 개교회주의). 그 결과 교회는 사회의 게토가 되고 신도들은 교회 조직체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교회와 사회 사이의 분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개교회주의 원리는 교회 사이의 편차를 심화시킨다. 한국의 경우 세계 제1의 규모를 가진 교회와 수만명의 신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 자체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는 소형교회도 많이 있다. 그리하여 교회 사이의 갈등구조가 만들어질 위험성도 있다. 개교회주의가 교단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경우 교단간 갈등의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한국교회의 교단 분열의 역사를 보면 신학적 노선의 차이나 교단내 헤게모니 다툼이 분열을 일으킨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교단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개교회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무관심, 교회간 편차, 교단간의 불일치 등은 일차적으로 교회 내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1,000만 가까운 신도를 가진 개신교의 경우 그것이 확대되어 사회적 분열이 일어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문화적 갈등 : 한국의 개신교회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세속적인 문화나 전통문화에 대하여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세속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사회의 전통 문화는 종교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마련이다. 한국의 전통문화 속에는 불교, 유교, 무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유일신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의 한국 개신교는 타종교나 전통문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역기능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최근 기독교계에서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단군상 철거 운동은, 한국고대사에 대한 학문적, 사상적 논쟁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암의 장승축제, 영광의 백제불교도래지 관광사업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독교계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교간 갈등이나 제사문제로 인한 갈등 등은 모두가 개신교와 전통문화 사이의 갈등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신교회 안에서도 전통 문화를 긍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지않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전통문화와의 갈등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분열을 일으켜 사회통합의 역기능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 기독교 지도자는 물론 타종교와 사회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IV. 한국개신교회의 변동-순기능

근대화의 통로 : 종교의 사회변동적 기능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Weber M.). 자본주

의의 등장을 진보로 보는가의 문제는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봉건적 신분질서로부터의 해방이 자본주의적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에서도 그 진보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사회변동의 순기능을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한국사회가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시절에 한국 땅에 유입되었다.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근대화에 앞선 미국으로부터 유입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를 향한 통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입문한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일반 대중들은 종교적 안심입명과 봉건적 수탈로부터의 보호라는 욕구가 많이 작용하였고, 식자층과 사회지도층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진 근대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독교를 통한 근대화와 구국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이만열, 1986: 13-22). 유입당시의 한국개신교는 당시의 서양이 가졌던 근대적 성격에 힘입어 신분차별과 성차별의 극복, 전통의 억압적 요소들의 타파, 근대적인 정치의식의 형성, 근대적인 기업윤리와 기업활동, 근대적 학교와 의료 시설의 설립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개신교회가 순기능적 사회변동에 기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20세기 초중엽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근대화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사회변동의 순기능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맞이하여 근대화 자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대적인 기술의 산물로 인하여 근대사회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즉 핵문제, 환경문제 등이 그것이며,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자본주의적 경쟁체제가 가진 문제, 위험사회의 문제(Beck U.), 가족의 해체와 1차적인 인간관계의 약화 등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근대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근대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기독교회는 근대성이 가진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일정한 기여를 해야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변혁운동 : 일제시대로 들어와서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국의 개신교는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한국교회의 3.1운동에의 참여는 그 대표

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월남 이상재,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등으로 대표되는 민족운동 세력은 개신교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민족운동은 일제라는 억압적 상황의 타파 즉 사회변동의 순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노치준, 1993).

해방 후 한국교회는 이승만정권과 밀착되면서 의미있는 사회변동의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하였다(강인철, 1996). 그러다가 4.19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군사정권 아래서의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한일협정 반대운동, 삼선개헌반대운동, 유신반대운동, 도시산업선교회운동 민주세력과 비민주적인 산업화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변동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복).

보다 최근의 역사 속에 나타난 통일운동, 환경운동, 시민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에 있어서도 한국의 기독교회는 일정한 몫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특별히 통일운동의 경우 한국개신교는 국제적인 조직망을 잘 활용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통일운동의 획을 긋는 중요한 선언이었다(이만열, 1995).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의 경우 이전 시대의 기독교운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선구적인 역할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기여를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 운동들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한국사회의 변동에 긍정적인 순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적 변혁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은 그 종교가 가진 독특한 신념에 따라서 문제적인 상황에 결과와 상관없이 대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막스 베버는 ‘종교인의 동기윤리’라고 명명한 바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서의 대결 의식은 때때로 역사의 돌파구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의 삼일운동이나 유신치하의 민주화 운동 등에서 우리는 한국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동기윤리에 따른 사회적 행동을 볼 수 있다. 물론 종교인에 의해 시작된 사회변혁운동이라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을

때는 일반사회의 전문적인 집단들이 그 일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순수한 종교적 신념이 위대한 사회변혁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V. 한국개신교회의 변동-역기능

보수주의와 반공주의 : 한국교회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송길섭: 273-278, 319-329). 이러한 신학적 보수주의는 자칫 사회적 보수주의와 연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물론 사회적인 보수주의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사회발전에 역기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다. 특별히 해방 이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일부 보수주의적 성향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3선개헌지지, 유신지지, 신군부지지 등의 정치적 행로를 걷는 등 사회적 발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김용복: 218-219, 240-243).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뿐 더 많이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의무나 책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신학적 보수주의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위험성이 많이 있었다.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공주의는 체제의 유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역사발전에 역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하였다. 1920년대 한국 땅에 공산주의가 유입된 이래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다(노치준, 1993: 73-86). 국내에서는 반기독교운동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만주 등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인의 순교도 적지 않았다(민경배, 1987: 210-214). 기독교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의 태도가 분명하였다. 해방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세워지면서, 북한 지역에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던 기독교회는 공산정권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김양선, 1956: 62-73).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하였고 그 결과 기독교회는 한국사회 반공의 전위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기독교회의 반공주의는 냉전 체제 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한국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

다(노치준, 1992: 233-237 ; 강인철, 1992). 반공주의가 가진 시대적 의미와 역할을 매도해서는 안되겠지만 통일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반공주의는 긍정적 사회변동의 역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하였다.

정권과의 결탁 : 1950년대 이승만정권과 기독교회가 결탁하였다는 것도 역사발전의 역기능적 양태로 비판받아야 하는 측면이다. 반공주의자이고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대통령에 대하여 한국의 개신교회는 거의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제1공화국 시절 관계, 정치계, 군부 등에 있어서 개신교인들은 고위직의 20-30%를 차지하고 있어서, 5% 안팎에 불과한 당시의 기독교 인구비율에 비해서 과대표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강인철, 1996). 이러한 정교간의 밀착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부패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결국 4.19혁명의 역사적 진보의 흐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60년대 이후에도 삼선개헌반대, 유신반대 등의 민주화운동의 흐름이 물결치고 있을 때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여 역사발전의 장애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에도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고위층 인사들과 부정적으로 결합하면서 사회발전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적지 않게 있다.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급 옷' 로비 사건은 이러한 모습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과의 결탁은 모든 제도 종교가 가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딜렘마 가운데 하나이다. 즉 종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그 사회 성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면 국가 권력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O'Dea T. : 169-172). 우리 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당성이 약한 정권들의 경우 그 정권을 정당화하는데 종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에는 한국에 온 외국 선교사들을 친일화하고자 하는 일제 당국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해방 후 군사 정권 시절에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저런 혜택을 주면서 정권의 정당화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군사정권 시절 자주 텔레비전에 비쳤던 조찬 기도회는 이러한 이용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나 종교가 정권과 결탁하는 경우 민중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새로운 문제에 빠지게 된

다. 또한 러시아의 정교회나 고려의 불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권 혹은 국가가 몰락했을 때, 종교까지도 함께 몰락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종교가 정권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경우 단기간의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역사 발전에 역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개신교와 한국 종교의 역사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권위주의와 물량주의 : 한국의 보수교회가 가진 권위주의적인 양태 역시 한국사회의 변동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로교회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개신교회에서 성직자와 장로 중심의 조직운영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억압의 작용을 하였다. 일반사회에서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발언권과 참여의 폭이 커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장년과 노년의 남성 중심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일반사회에서의 지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리와 가족배경에 의해 은폐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노치준, 1998 : 제6장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여성). 한국교회의 물량주의 역시 한국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한국교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물량주의는 교회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성향에 적응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물질적 부의 창출을 위한 효율성을 얻기 위하여 수 많은 인간적 가치들을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의 파괴, 과도한 경쟁, 불평등의 증대,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해 인간 문명은 시달리게 되었다. 교회의 존재이유는 문명의 병에 대한 치유이다. 즉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독소와 문제점을 신의 이름으로 해소하고 치유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사회적 목적이다. 그런데 물량주의에 빠진 한국교회는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억압적인 경쟁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역사발전에 역기능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노치준, 1998: 제4장 한국교회 물량주의의 문제).

VI. 나오면서

한국의 개신교회는 한국 땅에 유입된지 1세기 남짓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급속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신도수에 있어서는 900여만명으로 불교 다음으로 많으며, 한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교회와 성직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론, 출판, 사회복지, 교육 등의 사회기관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문화체육부).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만 잘 처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영적,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크게 사회변동의 기능과 사회통합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의 성격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적 틀은 연구의 도구와 접근하기 위한 개념틀로서는 유용하지만 실제의 현상이 이러한 틀에 맞추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다. 또한 하나의 현상이나 활동이 꼭 하나의 기능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기능을 행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하여 앞서 논의한 본문에서도 같은 현상이 다른 기능으로 분류되어 소개되어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교단조직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교단 중심주의적 정책을 창출하여 사회적 분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변동적 순기능으로 논의된 여러 가지 사회개혁 운동이 한국의 전통문화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회통합적 역기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양면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어느 편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가지고 기능을 결정지를 수밖에 없었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행한 역기능과 순기능 가운데 어떤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연구자의 인생관이나 종교관이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서서 긍정적인 순기능만 강조할 경우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이 결여되

어 발전이 지체되고, 동일한 과오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종교의 현상이라 할지라도 비판적인 시각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면에 특정 종교에 대한 거부적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또 다른 편견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객관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비판적인 안목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개신교회의 100년 남짓한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초창기에는 민족문화와 갈등이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순기능의 측면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급속한 양적 팽창을 경험한 후에는 많은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양적 성장이 가져온 딜렘마라고 하겠다. 즉 교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물질, 조직, 인적자원 등 이권이 많아지게 되면서, 세속적인 욕구에 굴복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뼈를 깎는 자기 반성에 의하여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다면 조직 자체의 존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 들어 한국개신교회의 신도 증가는 멈추어져 있는 상태이며,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는 징후도 많이 발견되어진다(노치준, 1998 : 제1장 한국교회 성장정체의 실태와 원인). 종교의 성장과 발전에는 종교내적인 요소와 종교외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하겠지만, 한국의 개신교회와 같은 대규모의 종교는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와 같이 세속화되고, 여러 종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가 사회적 사명이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사회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면 종교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개신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종교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강인철(1992). 한국전쟁기 반공이데올로기 강화. 발전에 대한 종교인의 기여. 한국

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강인철(1996). 한국교회와 국가·시민사회.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교신(1975). 조선지리소고. 김교신전집 제2집. 서울: 경지사

김양선(1956). 한국기독교 해방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종교교육부.

김양선(1971). 한국기독교사 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김용복(1982). 해방후 교회와 국가. 국가권력과 기독교. 서울: 민중사

노치준(1987). 베버와 뒤르케임의 종교사회학. 사회학 연구. 서울: 한국사회학연구소.

노치준(1992). 한국전쟁이 한국종교에 미친 영향.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노치준(1993).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운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노치준(1995).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노치준(1998). 한국 개신교사회학. 서울: 한울.

노치준(1999).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흐름과 방향. 기독교사회봉사의 현실과 전망.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 워크샵 자료집. 서울: 숭실대학교.

문화체육부(1997).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부.

민경배(1974). 한국민족교회형성사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민경배(1987).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오경환(1979).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이광수(1962).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이광수 전집 제17권. 서울: 삼중당.

이덕주(1990).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서울: 기독교문사.

이만열(1981).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이만열(1986). 한말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

이만열(1995).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의 의의. 기독교사상 (1월호).

이원규(1997).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최원규(1995). 한국사회복지의 변천과 외원기관의 역할. 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남

세진편. 서울: 나남.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1983).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서울: 숭전대학교출판부.

한국기독교연합회(1957). 기독교연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7).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동연구원.

한미준(1999). 한국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서울: 두란노.

함석헌(1950).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서울: 성광사.

Beck U. (1997). 홍성태 역.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Martin & Schumann(1997). 강수돌 역. 세계화의 덫. 서울: 영림 카디날.

O'Dea T.(1969). 권규식 역. 종교사회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Weber M.(1930). trans. by T. Parsons. *The Protestant Ethic and Spirit of Capita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